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18초만에 수천만원 털린 금은방 ▶7 |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될까 ▶8 | 전남 999㎞ 요트 실크로드 만든다 ▶11 |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431호 1판 2013년 2월 26일 화요일 (음력 1월 17일)

경제부흥·국민행복 새시대 열겠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3·4·5면

문화융성 포함 3대 국정목표 제시
"북핵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고 선언한 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각각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한 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軍)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인수받은 박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태세를 점검하며 업무를 공식 개시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삼성동 자택을 떠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을 마친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외교사절들과 차례로 단독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와 양자간 외교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축행사와 만찬에 참석해 외빈과 잇따라 회동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첫날을 보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협력업체 또 쓰러졌다
청소기 라인 베트남 이전 여파 올 들어 2곳 도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청소기 제조물량 베트남 이전이 현실화하면서 1차 협력업체 2곳이 올해 들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청소기 협력업체 2곳이 도산한 데 이은 것으로,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광주 하남산단에서는 '5월 청소기 라인 완전 해외 이전' 소문이 무성해 업계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삼성 청소기 부품 납품업체인 S사가 지난 4일 금융권에 돌아온 1억7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 업체는 19년 동안 삼성전자에 청소기 부품을 납품했으며 연간 290~300억원을 매출을 기록했다.

S업체 관계자는 "청소기 물량이 줄어들자 1차 벤더 코드를 반납하면서까지 회생을 도모했지만 지난해 말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소기 관련 1차 협력업체였던 H업체도 물량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등 경영난 악화로 이달초 사업을 접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 2010년부터 냉장고와 세탁기의 생산량의 15~30%을 멕시코와 폴란드로 옮겼다. 청소기는 지난해 초부터 저가형 중심으로 광주사업장 물량 일부를 옮겨 베트남 생산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청소기 사출 및 부품 관련 업체들도 곧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청소기 라인 5월 완전 이전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저가제품 이전 계획은 지난해 밝혔고, 협력업체에도 통보했기 때문에 물량 감소는 자연스레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인수위 "새 대통령 공약 타당성 조사후 추진"

광주·전남 SOC사업 몇개나 살아 남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공약들은 새정부의 국정목표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아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부처장관들이 취임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고려할 때 SOC 공약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15개 시·도별 7개씩 총 105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들이다.

박 대통령은 광주 공약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광주 도심 하천 생태복권사업 추진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전남지역에는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 체험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J프로젝트) 지원 등을 공약했다.

상당수가 대형 건설·토목 사업들이다. 문제는 사업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벌써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사업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공약이 사업성 부족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또다시 호남 소외의 굴레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약사업은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